

## 歐洲의 魅力的인 投資市場 -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電子業界는 輸出入에서 美·日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兩國의 景氣와 規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의 脫皮와 海外市場의 多邊化를 위한 政府와 業界의 노력은 歐洲, 東南亞, 中南美 등지에 擴散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西歐에 대한 進出은 美國과는 달리 言語·慣習·經濟 여건 등 阻礙 要因으로 인해, 그 중요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용이하지 않았다. 本稿는 西歐 진출을 위한 基地로서 好評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音樂의 都市 비엔, 왈츠, 오페라, 요한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포도주, 티롤 山脈 등으로, 오스트리아의 Image는 음악이며 觀光이기 때문에 同國의 産業이라고 하면 즉시 農業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同國의 産業 構造를 보면, 80년에는 GNP에서 차지하는 第1次 産業의 비율은 5%, 第2次 産業이 43%, 第3次 産業이 52%였으며, 第2次 産業의 비율로 볼 경우 日本보다 높은 工業國인 것이다.

주요 工業부문은 鉄鋼業, 化學工業, 機械, 製紙, 纖維工業 등이며 포도주, 酪農品을 주로 하는 食品工業도 활발하다. 同國 企業 活動의 一例를 보면, 최대의 기업은 鉄鋼·重機械 메이커인 韋스티 알피네社인데 산하의 그룹을 합할 경우 從業員은 7만 9,000명, 賣上高는 580億실링(약 30億弗)이며 輸出 비율은 60%를 넘고 있다. 현재 世界의 製鉄所가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LD 轉爐의 기술은 同社의 개발에 의한 것임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철강 이외의 분야에서도 Plant 建設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人당 GNP는 1만弗(80年)로 아주 높아서 日本보다는 10% 높고 美國보다는 10% 정도 낮다. 최근 GNP의 성장률(75~80년의 평균치)은 3.1%로서 4.6%의 日本보다 낮은 하지만 美國, 프랑스, 西獨을 상회하고 있는 工業國이다.

同國은 日本과 비교할 경우 人口는 1/15, GNP는 1/13, 國土 면적이 1/4.5의 小國이다. 國內 資源이 부족한 점은 日本과 거의 비슷하며, 原料를 輸入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同國 단독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는 多數의 企業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여 同國은 外國 企業의 誘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기업의 對 오스트리아 投資는 70년의 경우 연간 약 15億실링(약 8,000만弗)이었으나, 80년에는 그 2배인 약 30億실링(약 1億 6,000만弗)으로 증가되었다.

投資國은 美, 西獨이 중심이며, 美國으로부터는 General Motors, ITT, Coca Cola, 오티스 엘베타 등 20社가 그리고 西獨으로 부터는 Siemens, 다이무라, 벤츠, BMW, 韋스트, Reica 등 28社가 생산을 겨냥한 投資를 행하고 있다.

기타 韓企의 Philips, 쉘 등 29社가 생산에 나서고 있다. 이 결과 77년에는 제조업 종사자의 약 28%가 외국기업에 雇用되어 있다.

日本은 吉田工業과 三井Belt 2社가 진출,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同國에 投資가 적은 것은 과소평가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과소평가의 원인은 첫째, 中立國으로서의 制約 때문에 EC에도 가맹하지 않은 오스트리아가 그다지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데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는 오스트리아 역시도 外國기

업의 유치에는 열심이었으나 美國, 西獨, 荷蘭 등으로부터 충분한 投資가 있음으로 하여 日本 및 기타 國家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고는 하지 않았음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石油波動 이후 歐美 경제가 變調를 초래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충분한 投資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오스트리아 자체의 경제 운영에도 불투명한 기미가 엿보이고 同國 자체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歐美 경제가 停滯를 보이는 중에도 好調를 보이는 日本 기업에 활력을 기대하여 日·오스트리아 貿易 均衡을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측은 비로소 日本 기업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82年 8月, 오스트리아의 中堅 기업인 오이막社의 倒産이 계기가 되어 失業 문제가 심각해진 슈타이어마르크州 등에 대한 投資 요청이 있었다. 여기에 82年 5월에 있었던 日·오스트리아 貿易交流促進團, 83年 6月の 関經連團, 10月の 經團連團의 오스트리아 방문을 통해서도 오스트리아의 投資에 대한 강한 기대가 표명되었다.

이즈음, 오스트리아의 體制도 同國 國有持株會社(ÖIAG)의 子會社로서 해외로부터의 기업 誘致 활동을 행하는 ICD社(Industri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가 83年 1월에 설립되어 5월에는 在日本 오스트리아 通商代表部 내에 ICD업무를 위한 전담 직원이 배치되는 등 밀접한 관계로 강화되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에 ICD 전임 직원의 배치는 日本이 처음이기 때문에 同國이 日本에 대해서 얼마나 기업 유치에 열심인가를 알 수 있다.

#### □ 對 오스트리아 投資의 效果

여기서 오스트리아의 投資 환경과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市場面에서는, 오스트리아가 小國이므로 국내 시장은 크지 않지만, EC, EFTA와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輸出, 輸入의 関稅는 없다. (EC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協定에도 EC에 가맹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측도 있지만,

EC 加盟國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EC 加盟國間에서는 명확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오스트리아와 EC 國間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다.)

(2) 勞動 Cost는 西獨의 2/3 정도로서 美國, 프랑스보다 저렴하다.

(3) 技術者, 勞動者의 수준이 높고 人員은 과잉된 편으로 國外 流出도 많다. 産業의 再編, 노동생산성의 향상, 60年代의 Baby 붐 등에 의해, 매년 3만 5,000명에서 4만명의 잉여 노동력에 예상되고 있다. 또한 職業技能訓練을 위한 實習制度(西獨과 같은 마이스터 制度)가 확립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레벨이 높다. 매년 大卒 技術者가 4,500~5,000명씩 사회에 배출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産業만으로는 흡수하기 어려워 西獨, 美國 등 國外로 유출되고 있다.

(4) 오스트리아는 工業國이며 高度의 産業을 擁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基盤을 갖고 있다.

(5) 경제 상황도 비교적 양호하다. 80年 이후 오스트리아도 경제 성장의 둔화, 물가 상승률의 증가, 失業率의 증대에 번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82年의 경제성장률 1%,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실업률 3.8%로서 同年 EC 전체의 경제성장률 0.3%, 소비자물가 상승률 11%, 실업률 9.8%로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6) 勞使間의 협조가 아주 좋은 상태이며 罷業은 거의 없다. 노동자 1人당 罷業 시간은 81年에 日本이 7分인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30秒, 82년에는 겨우 2.4秒에 불과하였다.

(7) 投資 기업에 대해서 州 및 聯邦政府는 多大 措置를 취하고 있다.

① 投資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雇用기회 創出에 대하여 1人당 5만~10만실링(약 2,500~5,000弗)의 補助金制度

② 産業投資額의 최고 75%에 대해서 貸付기간 10年, 金利 年 5%의 貸付制度 시행. 특정 지역에는 최초 5年間에 대하여 年 2%의 低金利를 적용한다.

③ 연구개발 Project費의 최고 50%까지에 대한 補助金制度 및 低利融資制度.

④ 工場부지 내의 Infrastructure(基地, 垆地)의 코스트는 통상 오스트리아側이 전액부담. 정비된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많다.

⑤ 노동자의 研修費도 1人当 2만~3만 실링(약 1,000~1,500弗)을 오스트리아側이 부담.

⑥ 輸出金融은 最長 10年の 固定 또는 변동金利의 각종 용자제도가 있다. 현재의 평균金利는 장기(18個月이 넘는 것)가 8.4~8.7%,短期(18個月 이내)가 4.85%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오스트리아는 歐州에서 生産 拠點으로서 매력적인 존재가 확실해진다.

최근의 대규모적인 投資의 예로서는 Philips의 VTR 工場, GM社의 Engine 및 Transmission 工場 建設을 손꼽을 수 있다.

GM社의 담당자에 의하면, 歐州지역의 工場 建設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는데, 스페인의 경우는 市場의 크기가 그 결정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대개 순수한 生産 拠點으로서의 매력이 앞서서와 같이 선택을 하게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歐州 지역에 대해서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필히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工業國 오스트리아에 대한 投資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P. 37에서 계속).....

제 전체의 발전을 희생시키는 보호주의를 배격하여 자유로운 무역, 投資, 技術의 교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행히도 半導體 분야에 있어서는 日本의 半導體産業이 성장함에 따라 美國과 기술 교류, 投資 교류 등의 산업 협력 추진이 활발화되고 있으며, 또한 美·日 High Tech Work Group의 권고에 의해 半導體에 관한 공동 테마 수집이 개시되었고 민간 代表를 포함한 Sub Com-

mittee의 場이 마련되었다.

이상은 첨단 技術 분야에서 격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半導體産業 보호 육성 및 연구 개발이 표면상으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듯하나 實狀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특히 日本의 눈에 띄지 않는 産業政策과 政府·業界의 협력, 對外에 내세우고 있는 태도 등의 裏面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